범어사·내소사 대웅전 벽화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보물 지정예고
범어사 벽화 삼불신앙 구현
내소사 벽화 의겸계열 조성
흥국사 천룡도 등 6건 함께

신중일 · 하성미 기자


보물로 지정예고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중 아미타여래삼존도.

부산 범어사와 부안 내소사의 대웅전 내 벽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 6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대웅전 내부 동·서쪽 벽에 그려진 불화 4점으로, 한 공간에 삼불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삼불신앙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이후 황폐해진 불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교의 전통 신앙으로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두고 양옆에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를 배치해 모시는 게 특징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중앙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주불단 뒷벽에 걸린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동쪽 벽에는 동방 유리광정토를 주관하는 약사여래삼존도 벽화가, 서쪽 벽에는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여래삼존도 벽화가 배치돼 있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의 양 옆문의 위쪽 벽에는 동쪽에 관음보살도 벽화, 서쪽에 달마·혜가단비도 벽화가 배치돼 있는데 이는 달마대사가 관음의 화신이었다는 신앙적 배경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소재로 한 벽화는 청도 운문사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공간적 삼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가 한 공간 내에 구현된 사례는 범어사 대웅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주불전인 대웅보전의 후불벽 뒷벽에 그려진 작품으로, 위쪽에 5개, 아래쪽에 4개의 샛기둥을 설치하여 벽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흙을 발라 화면을 마련한 뒤 그 위에 직접 그렸다.

이 벽화의 내용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한다. 관음보살 머리의 보관 중앙에는 태극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보관의 태극문은 의겸(義謙) 일파가 제작한 개암사 괘불 등에 표현된 것과 같아 이 작품도 같은 화승 집단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유산청은 "내소사 대웅보전 벽화는 의겸 계열 양식 비교·편년 연구의 준거를 제공한다"며 "특히 당시 유행했던 도상과 양식을 잘 담아내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예고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세종 지은 '월인천강지곡', 칸타타로 재현

5월 17~18일 봉은사 · 평택서
김준수 등 당대 소리꾼 총집결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부처님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이 칸타타로 만들어져 상연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 스님)과 평택시문화재단(대표 이상균)은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봉축음악회-세종대왕께서 지은 부처님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이 5월 17일 오후 4시 봉은사 미륵대불 앞 야외 특설무대와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두 차례 개최된다"고 밝혔다.

'월인천강지곡'은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조선 전기, 대신과 유생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고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지어 백성들이 부르도록 한 찬불가다. 이는 새로운 창작 찬불가 및 한국 불교음악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다.

'천 개의 강에 달이 비치듯 모든 존재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본래 가사만 전해지던 역사적 문헌을 토대로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작곡가)에 의해 2시간 분량의 교성곡(칸타타)으로 작곡된 '월인천강지곡'은 지난 2023년 국립극장 남산 이전 50주년 기념 무대에서 첫선을 보이며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음악회에는 지휘 박범훈, 총연출 손진책, 안무 국수호, 노래 및 연기지도에 김성녀가 참여한다. 또한 국악관현악(봉은국악합주단,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에 서양 악기(호른, 트롬본,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객원으로 합류하며, 대규모 연합 합창단(봉은사 슈리말라, 불교음악원 불음꽃, 메트오페라)과 채향순 무용단이 함께 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대 최고의 소리꾼들이 참여한다. 중심 인물인 세존 역은 김준수, 세종대왕 역은 김수인, 소헌왕후 역은 이소연이 맡아 무게감 있는 소리로 극적 전개를 이끈다. 소리꾼 박애리가 교성곡 '니르바나'를 노래하고, 유태평양과 홍승희가 도창 역을 맡아 극의 서사를 완성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공연은 원작 중 핵심 아리아 대목을 엄선하여 약 1시간 20분 길이로 재편성한 것으로 작품의 정수만을 집약해 선보인다"면서 "한국 공연 예술계의 거장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한층 더해 현대 불교 음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나도 할 수 있는 나눔의 능력

㊶ 무재칠시(無財七施)

無 財 七 施

우리는 흔히 '나눔'을 떠올릴 때 두꺼운 지갑부터 생각한다. 많이 가져야 베풀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스스로 결핍된 존재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무재칠시(無財七施)'는 전혀 다른 차원의 풍요를 일깨운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차선책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닌 능력—존재 자체로 타인을 살릴 수 있는 힘—에 대한 선언이다.

〈잡보장경〉이 말하는 무재칠시는 마음만 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나눔이다. 안시(眼施)는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일이고, 화안시(和顔施)는 온화한 표정을 짓는 일이다. 언사시(言辭施)는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이며, 신시(身施)는 몸으로 돕는 것이다. 심시(心施)는 마음을 여는 일이고, 상좌시(床座施)는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며, 방사시(房舍施)는 편히 쉴 공간을 나누는 일이다. 이 모든 나눔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 나눔의 힘을 깊이 드러내는 인물이 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미리엘 주교다. 은식기를 훔치다 붙잡힌 장발장이 경찰에게 끌려오자, 그는 담담히 말한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의 눈빛(안시)과 온화한 얼굴(화안시)에는 낙인도, 경멸도 없다. 오직 한 인간을 향한 온전한 인정이 담겨 있다. 주교는 장발장을 '죄인'이 아니라 '형제'로 바라보았고, 그 따뜻한 시선은 19년의 감옥살이로 굳어버린 심장을 녹였다. 그가 건넨 것은 은식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자리'였다.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의 구두 수선공 마르틴 역시 다르지 않다. 그는 가난했지만, 추위에 떠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와 공간을 내어주고(방사시), 굶주린 여인에게 빵을 나누며 외투를 덮어주었다(심시, 신시). 또한 자신의 낡은 의자를 기꺼이 내주며(상좌시) 좁은 작업실을 온기로 채웠다. 그의 나눔은 거창한 자선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여유를 타인의 고통과 잇는 조용한 실천이었다.

두 인물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의 본질을 보여준다. 따뜻한 눈길, 위로의 한마디는 이미 우리 모두가 지닌 온기다. 우리가 나눔을 주저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따뜻함을 잊었기 때문이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라. 마음의 여백을 조금만 내어주어라. 베풂은 남는 것을 건네는 일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를 타인의 삶과 연결하는 일이다. 그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니라, 풍요로운 존재가 된다.

한 자루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힌다고 해서 제 빛이 줄어들지 않듯, 마음을 나누는 일은 소멸이 아니라 확산이다. 오늘, 당신이라는 등불로 세상의 어둠을 한 걸음 밀어내 보라.

〈화순 불암사 주지〉

봉정사 괘불, 큐레이터 해설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 5월 전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시 중이다.

큐레이터 해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이번 달에는 상설전시관 5곳과 '역사의 길', 어린이박물관에서 15개의 주제로 주 4회씩 총 16회가 열린다.

불교 관련 프로그램은 총 3개다. 5월 6일 오후 6시 선사·고대관 고구려실에서는 '연가칠년명 금동보살입상의 보존처리'(박학수), 같은 날 오후 6시 '역사의 길'에서는 '경천사 십층석탑'(신소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월 20일 오후 6시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는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한길중) 해설이 이뤄진다.

'연가칠년명 금동보살입상 보존처리'에서는 금동보살입상의 보존 과정과 노력을 살폈으며, '경천사 십층석탑'에서는 석탑의 입수 과정과 미술사적 가치를 다뤘다.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에서는 부처가 설법하는 장면을 통해 종교 예술의 의미를 조명할 예정이다.

이현희 수습기자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Karma and Social Edification in Northern Dynasties Buddhism

활산 지음 | 양장본
584쪽 | 38,000원

업보業報, 중국 북조의 운명을 바꾸다!

'업보는 어떻게 한 사회의 규범이 되었는가?'

"선을 쌓으면 복, 악을 쌓으면 재앙"이라는 인과응보와 만나
중국 북조 사회를 하나로 묶는 통치 이념과 삶의 기준이 되다

다민족이 뒤섞인 특수한 정치·사회 구조 속 혼란이 이어지던 중국 북조 시기, 불교는 통치층과 민중 모두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특히 업(業)과 업보(業報) 관념은 "선을 쌓으면 복이 따르고, 악을 쌓으면 재앙이 따른다"라는 중국 전통의 인과응보 사상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사회 전반에 스며들었다. 이와 함께 신분과 지위는 타고난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공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업보 관념은 서로 다른 민족과 출신 집단을 아우르는 공통의 윤리로 자리 잡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